

Macro Comment



미국 금리 인상은 12월 FOMC에서

흥국거시경제 김진성 / (02)6742-3533 / jskim@heungkuksec.co.kr

- 10월 FOMC, 기준금리 3.75~4.00%에서 동결
- 고용 안정,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경기판단 상향으로 금리인상 사이클 유지 시사
- 2% 물가목표 재확인과 함께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 전망

매파적 인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제한적인 정책 대응으로 해석

미 연준 FOMC는 10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를 현행 3.75~4.0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조한 경기흐름, 장기간 정책목표를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등 9월 금리인상 결정의 이유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 특별히 새로운 데이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명의 위원은 25bp 금리인상을 선호하며 이번 결정에 반대했다.

성명서도 9월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경제활동을 '강한(strong)' 확장기조로 표현하여 전월의 '건조한(solid)'에서 한층 강화되었다. 3분기 GDP성장률이 상반기 수준(연율 2.4%)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하는 변화로 보인다. 지정학적 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으나 국내 소비는 탄력적(resilient)이며 생산성과 자본투자가 강한 증가세를 보이고 고용증가는 노동력 추세에 부합하고 실업률은 변동이 없었다 등은 동일한 표현이 유지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으며 '더 많은 정보 축적'이 위원회가 적시에(timely) 2%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술했다. 9월에는 금리인상 결정이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면, 다음 회의까지 추가되는 데이터, 또는 연구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기자회견에서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여건이 이전보다 긴축적으로 전개된 것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했다.

11~12월 고용보고서가 기존 추세를 벗어나지 않으며, 11월 CPI 및 PCE 인플레이션 안정속도가 더디고 여전히 3%대 높은 수준을 보일 경우, 12월 FOMC(12/9, 미국 시각)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연준의 경기판단이 상향된 것은 수요측 물가압력과 이에 대응하는 금리인상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다만, 노동구조와 임금, 생산성 관련 구조적 변화 가능성 등은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기조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이 장기화되거나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연내 1회 포함하여 내년 1분기까지 2회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

이번 결정과 이후 기자회견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도비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리동결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인 동시에 연속적인 금리인상 등 정책강도를 시장 기대 이상으로 강화할 적극적인 의지는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락하고, 최근 하락 조정했던 장기물 금리는 상승했다. 12월 회의 금리인

상 기대확률도 FOMC 이후 85%내외로 높아졌다가 기자회견 이후 회의 이전과 비슷한 78%수준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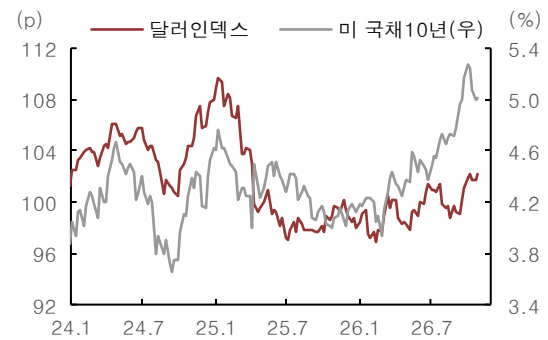
더불어 워시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 결정 빈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연 8회 FOMC 회의 중 기준금리 결정은 2027년 7회, 2028년부터는 연6회로 줄일 것을 예고했다. 긴급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으나 포워드 가이드라인 폐기에 이어 정책결정횟수 축소, 즉 정책 결정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준의 시장 영향력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변동성을 축소될 지, 오히려 선반영하는 시장 움직임이 증폭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림 1 미국 기준금리와 장단기 국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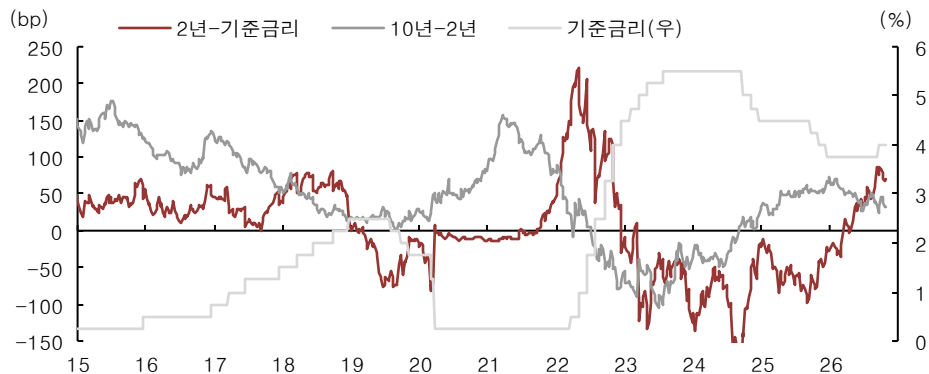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달러인덱스와 장기 국채수익률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미국 장단기 금리차와 연방기금금리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권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홍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홍국씨앗체는 홍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홍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홍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리서치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35
- 팩스 영업부 대표 02)739-6286